KOREAN J. DIETARY CULTURE
Vol. 5, No. 1 (1990)

韓國 茶禮의 史的 考察
— 제 2보 조선시대 —

孫 旼 伶

大田實業專門大學 敎養學科

(1989년 9월 7일 접수)

A Historical Studies on the Korean Tea Rituals
- Part II Chosun Dynasty -

Son Min Young

The Dae Jon Vocational Junior College

(Received September 7, 1989)

Abstract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re were royal proprieties of tea ritual mainly for the purpose of serving envoy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offering of a new product to the Deity.

There were buddhist proprieties of tea ritual representing religious ideals of each sect of Buddhism.

And Confucian tea rituals wer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book entitled Kare (a family code of decorum) written by Chuja.

Besides these there, were Taoist proprieties of the ritual.

Ⅰ. 序 論

朝鮮時代의 茶禮에서는 官衙의 茶禮, 佛敎의 茶禮, 儒敎의 茶禮에 追加하여 道敎의 茶禮도 살피고자 한다.

특히 佛敎의 茶禮에서는 所謂 抑佛崇儒政策의 施行으로 因하여 茶禮가 斷絶되었는가의 與否와 儒敎의 茶禮에서는 朱子家禮의 遵行與否도 살피고자 한다.

Ⅱ. 本 論

1. 차의 風習

조선시대에는 餠茶의 烹茶法, 硏膏茶의 點茶法, 葉茶의 泡茶法 등이 성행되었다.

1) 烹茶法

詩書畫의 三絶로 꼽히는 申緯(1769-1847)가 읊은 다음의 茶詩에 따르면 餠茶를 돌남비에서 삶아 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伊川人贈石銚汲方丹泉煮龍脊茶餠有作

石銚烹茶貢餠香　銅甁汲水佩聲鏘

勞形案牘欠伸頃　已過松風第二湯[40]

2) 點茶法

慶尙道의 觀察使를 지낸 河演(1376-1454)이 읊은 다음의 茶詩에 따르면 鮮初에도 硏膏茶를 點茶法으로 달여 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智異山僧送新茶

晉池風味臘前春　智異山邊草樹新

金屑玉糜煎更好　色淸香絶味尤珍[41]

3) 泡茶法

茶山 丁若鏞(1762-1836)이 읊은 다음의 茶詩에 따르면 芽茶인 雀舌茶를 銀甁에서 우려 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春日棣泉雜詩

鴉谷新茶始展旗　白鴉谷黔丹山北產雀舌茶

40) 金明培, 「韓國의 茶詩鑑賞」, 70面
41) 上揭書, 52面

一包纔得里人貽　　椽泉水品淸何似
開就銀甁小試之[42]

2. 官衙의 茶禮

官衙에서 거행된 茶禮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賓禮와 宗廟의 薦新을 꼽을 수가 있다.

1) 賓禮

賓禮 중에서도 가장 規模가 큰 것이 中國의 勅使를 迎接하는 茶禮이다.

이러한 茶禮에는 遠接茶禮, 宴朝廷使儀의 茶禮, 仁政殿 接見儀의 茶禮, 使殿受勅儀에서의 接見茶禮 등이 있는데, 그 內容에 類似點이 많으므로 便宜上 가장 代表的인 宴朝廷使儀의 茶禮를 살펴보기로 한다.

(1) 朝廷의 使臣을 宴會하는 儀式(太平館)

司尊提擧 1人은 茶甁을 받들고, 1人은 茶鍾과 쟁반을 받들고 모두 들어와서 酒亭의 동쪽에 서고,(찻종을 받든 사람은 서쪽에 서 있다.) 司饔提擧 2人은 과실쟁반을 받드는데, 1人은 正使의 오른쪽에 북쪽 가까이 남향하여 서고, 1人은 副使의 왼쪽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선다.(使者는 비록 副使 이하의 사람이라도 과실 쟁반은 모두 왼쪽에 있다.) 提調가 과실 쟁반을 받들고 전하의 오른쪽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서고, 使尊提調가 찻종으로써 茶를 받아(提擧가 따른다.) 차를 꿇어앉아 전하에게 올리면,(찻종을 올리려고 하면, 전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앞으로 나와서 서고 使者도 자리에서 일어나 또한 조금 앞으로 나와서 선다. 술을 올리는 예(禮)도 이와 같다) 전하가 찻종을 잡고 正使 앞에 나아가서 茶를 건낸다. 正使가 찻종을 받아 임시로 通事에게 준다. 提調가 또 찻종으로써 차를 받아 꿇어앉아 전하에게 올리면, 전하가 찻종을 잡고 副使 앞에 나아가서 차를 건낸다. 副使가 찻종을 받으면, 전하가 조금 물러난다. 提調가 또 찻종으로써 차를 받아 서서 正使에게 올리면, 正使가 찻종을 잡고 전하 앞에 나아가서 차를 올린다.(提調가 물러가 酒亭 뒤로부터 酒亭의 서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술을 올리는 예도 이와 같다.) 전하가 찻종을 쥔다. 通事가 임시로 찻종을 받아 서서 正使에게 올리면, 正使가 도로 찻종을 쥔다. 使者가 자리에 나아가고, 전하가 자리에 나아가서 차를 든다. 司尊提擧는 각각 使者 앞에 나아가서 서서 찻종을 받고, 提調는 전하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찻종을 받아, 모두 찻쟁반에 그전대로 두고서 나간다. 처음에 차를 들고 이를 마치려 할 때, 司饔提擧는 서서 使者에게 과실을 올리고, 提調는 꿇어앉아 전하에게 과실을 올린다. 이를 마치면 모두 쟁반을 가지고 나간다.[43]

이 茶禮가 수록된 「世宗實錄의 五禮儀」는 世宗이 승하한 이듬해인 文宗 1년(1451)에 완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茶禮는 23년 뒤인 成宗 5년(1474)에 완성된 「國朝五禮儀」에 수록된 宴朝廷使儀[44]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2) 宗廟의 薦新

「國朝五禮儀」에 수록된 宗廟의 薦新에 관한 의식에는 음력 2월에 雀舌茶가 포함되어 있다.[45]

陳設. 1일 전에 奉常侍는 햇것의 齊廚(부엌)를 설치한다.

奉常侍正과 宗廟署令은 齊廚로 가서 함께 점검한다.

그날에 이르러 籩豆를 每室의 문밖에 설치하여 햇것을 담아 차린다.

薦新하는 날, 宗廟署令은 그 소속인원을 거느리고 室門을 열어 소제를 하고 햇것을 차린다.

마치면 奉常寺正은 常服으로 들어가서 위치로 나아가 서향으로 4배를 한다.

盥洗位로 나아가 북향으로 하여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마치면 阼階로 올라가서 제1실의 문밖으로 나아가 북향으로 선다.

執事者가 햇것을 奉常寺正에게 준다.

奉常寺正은 햇것을 받아 神位 앞으로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앉아 드리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그 문을 나와 다음 각실로 가서 받아들임을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마치면 내려 본 위치로 돌아와서 4배를 하고 물러간다.

3. 佛敎의 茶禮

1) 宗派

조선시대에는 두 번에 걸친 불교 종파의 통폐합이 있었다.

첫번째는 태종 7종(1407)경에 11종(曹溪, 總持, 天台疏字, 天台法事, 華嚴, 道門, 慈恩, 中道, 神印, 南山, 始興)을 7종(天台, 摠南, 曹溪, 華嚴, 慈恩, 中神, 始興)으로 줄였다.

두번째는 세종 6년(1424)에 7종을 禪宗(曹溪, 天台, 摠南)과 敎宗(華嚴, 慈恩, 中神, 始興)으로 줄였다.[46]

따라서 조선시대의 茶禮에는 여러 가지의 信仰的인 要素가 나타난다.

---

42) 上揭書, 89面
43) 實錄廳 「世宗實錄」 卷 133, 72面
44) 成宗命編 「國朝五禮儀」 卷 5, 1~2面
45) 黃慶煥, 「朝鮮王朝祭祀」(서울 : 文化財管理局, 1967), 80面
46) 金得榥, 「韓國宗敎史」(서울 : 海文社, 1963), 214~216面

2) 「梵音集」의 茶禮

조선시대의 佛敎儀禮가 集大成된 典範은 景宗 3年(1723)에 智異山의 智還道人이 엮은 「梵音集」이다.

梵音과 梵唄의 音律을 바르게 하는 音聲 敎化의 儀禮가 强調된 「梵音集」에는 靈駕薦度儀式이 要諦로 되어 있다.

그런데 薦度儀式에는 小禮, 大禮, 靈山作法儀가 있으며, 各己 다음과 같은 儀禮節次가 마련되어 있다.

供養 禮敬 開啓 道場淸淨 懺悔 請法 啓請 擧佛由致請詞 禮讚 頂禮 供養 發願 回向 祝願

그리고 小禮의 常住勸供과 大禮의 上壇勸供에서는 供養할 때 다음과 같은 茶偈로 供養을 드리게 되어 있다.

今將甘露茶 奉獻三寶前
鑑察虔懇心 願垂哀納受[47]

또 大禮에서는 小禮인 常住勸供의 위에 追加되는 中壇勸供에 茶偈에 의한 茶供養이 있다.

茶 偈
今將妙藥及茗茶 奉獻靈山大法會
俯鑑檀那虔懇心 願重慈悲哀納受[48]

加持偈
…香供養 燃香供香 燈供養 燃燈供養 茶供養 仙茶供養 花供養 仙花供養 果供養 仙果供養 米供養 香米供養…[49]

또한 靈山作法의 施食儀禮인 觀音施食에도 다음과 같은 茶偈가 있다.

今將甘露茶 奉獻證明前
鑑察虔懇心 願垂哀納受[50]

한편 이러한 茶偈는 1931년에 安震湖가 엮은 「釋門儀範」에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茶禮의 風習은 繼承된 것으로 확인된다.[51]

4. 儒敎의 茶禮

우리나라에서는 宋나라 朱熹(1130-1200)의 「家禮」에 있는 冠婚喪祭의 茶禮를 遵行한 경우와 遵行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禮書에 의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茶禮가 있는 禮書

仁祖 4年(1626)에 全羅道의 靈光郡에서 刊行된 明나라 丘濬의 「文公家禮儀節」에는 다음과 같이 茶禮의 規範이 보인다.

(1) 冠禮

(儀節)序立(차례로 서기), 盥洗(손을 닦고 잔을 씻음), 啓櫝(함 열기), 出主(제사 때 사당에서 신주를 모시어 내다), 復位(제자리로 돌아감), 降神(제사 때 신이 내리게 하는 뜻으로 향을 사르고 술을 茅沙에 붓는 일), 主人詣香案前(주인은 일어나서 향이 놓인 상앞에 나아가서), 跪(꿇어앉아), 焚香(향을 사르고), 酹酒(술을 茅沙 위에 뿌리고), 俯伏(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興(일어나서), 鞠躬(몸을 굽혔다가), 拜(절하고), 興, 拜, 興, 平身(몸을 일으켜 바로 선다), 復位, 參神(신주에게 절하여 뵙고), 鞠躬,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主人斟酒(주인은 술을 따르고), 主婦點茶(주부가 차를 달이고),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復位, 跪, 告辭(글로써 아뢴다)…[52]

위에서 「主婦點茶」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부가 찻병을 잡고, 각 正祔位 앞의 빈잔 속에 차를 따른다. 맏며느리와 맏딸로 하여금 여러 祔位의 낮은 사람에게 따른다. 또는 아들로 하여금 찻잔 받침을 받들도록 명령하고, 주부가 찻잔을 받쳐 차례를 좇아서 바쳐도 좋다. 예식이 끝나면 주부는 주인과 함께 물러나서 함께 절을 한다.

(2) 婚禮

婚禮에는 納采와 廟見에 茶禮가 있었다.

納采

序立, 盥洗, 啓櫝, 出主, 復位, 降神, 主人詣香案前, 跪, 焚香, 酹酒, 俯伏, 興, 拜, 興, 拜, 興, 平身, 復位, 參神, 鞠躬,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主人斟酒, 主婦點茶,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主婦復位, 跪, 讀祝(축문을 읽고), 俯伏, 興, 平身,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復位, 辭神(신에게 아뢰고), 鞠躬,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焚祝文(축문을 불사르고), 奉主人櫝(주인이 받들어 함에 넣고), 禮

47) 智還道人「梵音集」62面
48) 上揭書, 54面
49) 上揭書, 32面
50) 上揭書, 63面
51) 安震湖, 「釋門儀範」(京城 : 卍商會, 1931), 上, 42, 111, 143, 163, 下, 16, 31面
52) 丘濬「文公家禮儀節」卷 一, 14~16面

畢(의례를 마친다)[53]

廟 見

序立, 盥洗, 啓櫝, 出主, 復位, 降神, 詣香案前, 跪, 上香, 酹酒, 俯伏, 興, 拜, 興, 拜, 興, 平身, 復位, 參神, 鞠躬,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主人斟酒, 主婦點茶,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主婦復位, 跪, 告辭曰某之子 以某日 昏畢, 新婦某氏敢見 俯伏, 興, 平身, 新婦見, 鞠躬,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復位, 辭神, 鞠躬,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新婦點茶, 復位, 又四拜[54]

廟見에서는 主婦와 新婦의 點茶가 있었다는 것이 注目된다.

(3) 喪禮

조선에서도 四禮에서 喪·祭禮를 중요시한 것은 靈婚不滅論에 따르는 孝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55]

① 朝奠

날마다 辰時(7-9시)에 일어나면 執事者는 靈座 앞의 卓子 위에 蔬, 果, 脯, 鹽, 羹, 飯, 茶, 酒, 匙, 箸를 베푼다.

그「儀節」에도 點茶가 있다.

就位, 擧哀, 奉魂帛出就靈座, 祝盥洗, 焚香, 斟酒, 點茶, 拜, 興, 拜, 興, 平身, 禮畢[56]

② 上食

執事者가 朝奠을 치우고 前과 같이 陳設한다. 그 儀節은 다음과 같다.

就位, 擧哀, 祝盥洗, 焚香, 斟斗酒, 點茶, 拜, 興, 拜, 興, 平身, 禮畢[57]

③ 夕奠

執事者가 舊奠을 치우고 前과 같이 陳設한다. 그 儀節은 다음과 같다.

就位, 擧哀, 祝盥洗, 焚香, 斟酒, 點茶, 拜, 興, 拜, 興, 平身, 奉魂帛入靈牀[58]

④ 三虞祭後의 翊日

그날의 儀節에도 點茶가 있다.

序立, 出主, 擧哀, 哀止, 降神, 盥洗, 詣香案前, 跪, 上香, 酹酒, 俯伏, 興, 拜, 興, 拜, 興, 平身, 復位, 參神, 鞠躬,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進饌, 初獻禮, 詣靈座前, 跪, 祭酒, 奠酒, 俯伏, 興, 拜, 興, 拜, 興, 平身, 跪, 主人以下 皆跪, 讀祝, 俯伏, 興, 平身, 擧哀, 哀止,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復位, 亞獻禮, 詣靈座前, 跪, 祭酒, 奠酒, 俯伏, 興, 拜, 興, 拜, 興, 平身, 復位, 終獻禮, 詣靈座前, 跪, 祭酒, 奠酒, 俯伏, 興, 拜, 興, 拜, 興, 平身, 復位, 侑食, 主人以下 皆出, 闔門, 祝噫歆, 啓門, 復位, 點茶, 告利成, 利成, 辭神, 擧哀, 鞠躬,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哀止, 焚祝文, 納主, 徹饌, 禮畢[59]

(4) 祭禮

四時祭의 儀節에서 茶禮인 主婦點茶의 順位는 다음과 같다.

序立, 參神, 鞠躬,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降神, 盥洗, 詣香案前, 跪, 上香, 酹酒, 俯伏, 興, 拜, 興, 拜, 興, 平身, 進饌, 初獻禮, 詣某親墓前, 跪, 祭酒, 奠酒, 俯伏, 興, 平身, 詣讀祝位, 跪, 俯伏, 興,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 奉饌, 亞獻禮, 詣某親墓前, 跪, 祭酒, 奠酒, 俯伏, 興, 平身, 復位, 奉饌, 終獻禮, 詣某親墓前, 跪, 祭酒, 奠酒, 俯伏, 興, 平身, 復位, 奉饌, 侑食, 主婦點茶, 辭神, 鞠躬,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焚祝文, 禮畢[60]

2) 茶禮가 없는 禮書

性理學者로서 工曹判書를 지낸 李縡(1680-1746)의「四禮便覽」에는 茶禮가 없다.

(1) 喪禮

① 食時上食

上食을 위한 諸具에 茶가 보이기는 하지만 熟水가 俗用된다고 적혀 있다.

飯, 羹, 饌, 匕, 筯, 楪, 盤, 茶(俗用熟水)[61]

② 吊

吊喪할 때 올리는 물건에 茶가 보이지만 나라 풍속에 차는 쓰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53) 上揭書, 2~3面
54) 上揭書, 24~25面
55) 子思,「大學·中庸」白奎煜 外 譯(서울 : 弘新文化社, 1978), 337面
56) 丘 濬,「文公家禮儀節」卷 五, 1~2面
57) 上揭書, 1~2面
58) 上揭書, 2面
59) 上揭書, 卷 六, 7~8面
60) 上揭書, 卷 七, 6~7面
61) 李 縡「四禮便覽」卷 四, 24面

奠用香茶燭酒果 (國俗不用茶)[62]

③ 虞祭

具饌을 위한 諸具에 茶가 보이나 俗되게는 熟水로써 代用한다고 적혀 있다.

[諸具] (具饌)…茶 (俗代以熟水)

(2) 祭禮

① 祠堂

李縡는 夾注에서

(按)茶是中國所用而 國俗不用 故設茶 點茶等文 一并刪去[63]

라고 說明하였다.

3) 慣行

近年에 발표된 民俗調査에서도 茶禮를 擧行하는 경우와 擧行하지 않는 경우가 報告되었다.

(1) 茶禮를 擧行하는 경우

한 연구에 따르면, 全南 求禮郡 馬山面 馬山里에 사는 金□琪氏宅의 忌祭는 「喪祭類要」의 격식을 따르고 있는 데

侑食에 이어 메 뚜껑을 열고 揷匙, 正箸, 闔門, 啓門, 獻茶, 撤匙 順으로…

한다는 것이다.[64]

(2) 茶禮를 擧行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嶺南地方의 一部 宗家에서 擧行되는 祭禮에서도 茶禮(正朝, 秋夕, 冬至)는 있으나 茶는 陳設되지 않고 있다.[65]

5. 道敎의 茶禮

道家와 茶의 만남은 久遠한 것 같다.

즉, 道家의 始祖인 老子가 周나라 守藏室에 있다가 亂世를 避해서 函谷關에 이르렀을 때 關令인 尹喜가 먼저 차를 대접하였다고 한다.[66]

고려시대의 道觀으로서는 松都에 福源觀, 昭格殿, 淨事色, 大淸殿, 九曜堂이 있었고, 艮方인 和寧, 巽方인 忠州, 坤方인 富平, 乾方인 龜州에는 太一殿이 있었다.

이러한 道觀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消災招福하는 齋醮와 같은 道敎行事가 거행되었다.

그런데 道敎의 醮祭에는 茶奉獻이 있기 마련이지만, 「高麗史」에 전하는 史料에는 茶奉獻은 보이지를 않고, 「제물」, 「淨水와 獻花」, 「남쪽 냇가에서 캔 마름을 제수로 마련하여 초제를 올리나이다」라는 말이 보일 뿐이다.[67]

그러나 조선시대의 昭格署에서는 다음과 같이 茶禮가 거행되었다.

…獻官與署員 皆白衣烏布致齋 以冠笏禮服行祭 祭奠諸果資餠茶湯與酒 焚香百拜[68]

III. 結 論

1. 官衙의 茶禮는 高麗時代에 比하여 種類는 줄었으나 使臣맞이 茶禮는 規模가 커졌다.

2. 佛敎의 茶禮에서 「百丈淸規」와 「禪苑淸規」에 의한 禪宗의 茶禮는 脈이 끊어진 대신에 信仰體系로 볼 때 「梵音集」에 의한 密敎의 茶禮가 擧行되었다.

3. 儒敎의 茶禮는 朱子의 「家禮」에 의한 冠婚喪祭의 茶禮가 準行되었으나, 規範과 慣行을 莫論하고 家風에 따라서 行禮與否가 左右되었다.

4. 道敎의 茶禮는 壬辰倭亂 後에 昭格署가 廢止될 때까지 昭格署에서 擧行되었다.

參考文獻

1. 金明培, 「韓國의 茶詩鑑賞」서울 : 大光文化社, 1988.
2. 實錄廳 「世宗實錄」 卷 133.
3. 成宗命編 「國朝五禮儀」 卷 5.
4. 黃慶煥, 「朝鮮王朝祭祀」 서울 : 文化財管理局, 1967.
5. 金得榥, 「韓國宗敎史」 서울 : 海文社, 1963.
6. 智還道人 「梵音集」
7. 安震湖, 「釋門儀範」 京城 : 卍商會, 1931.
8. 丘 濬 「文公家禮儀節」 卷 1~7.
9. 子 思, 「大學·中庸」 白寬烋 外 譯, 서울 : 弘新文化社, 1978.
10. 李 縡 「四禮便覽」 卷 4, 8.
11. 張哲秀, "祭禮", 「韓國民俗大觀」 第1卷, 서울 :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80.
12. 李壽恩, "嶺南地方의 祭禮에 관한 調査硏究", 碩士學位論文, 啓明大學校 大學院, 1981.
13. 金明培, 「日本의 茶道」 서울 : 保林社, 1987.
14. 李能和, 「朝鮮道敎史」
15. anon, 「大東野乘」 卷 1.

62) 上揭書, 26面
63) 上揭書, 卷 八, 8面
64) 張哲秀, 「祭禮」(韓國民俗大觀, 第 1卷, 서울 :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80), 724~725面
65) 李壽恩, "嶺南地方의 祭禮에 관한 調査硏究", (碩士學位論文, 啓明大學校 大學院, 1981), 13~33面
66) 事物窮原, 金明培, 「日本의 茶道」(서울 : 保林社, 1987), 299~300面
67) 李能和 「朝鮮道敎史」 39~42面
68) anon, 「大東野乘」 卷 一, 578面